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2-3학년 시기 양육역량 변화유형과 예측요인: 자기체계역량, 학교생활 파악수준, 담임교사 상담횟수 및 사회관계망 변화를 중심으로*

The Types of Change in Mothers' Parenting Competency During Their Children's 2nd to 3rd Grades of Primary School and Their Predictive Factors: Focusing on the Changes in Self-System Competency, Level of Understanding of School Life, Number of Counseling Sessions, and Social Networking

최지혜¹ 조혜령² 김영선³

Jihye Choi¹ Hye Ryung Cho² Youngsun Kim³

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changes and predictive factors of mothers' parenting competencies during their children's second to third grades in primary school.

Methods: We used the data from the Panel study of Korean Parental Educational Involvement. We classified 373 mothers into three groups, 'reduced' parenting competency, 'maintained' parenting competency, and 'increased' parenting competency, and conducted one-way variance analysis and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sults: First, the mothers' parenting competency decreased between their children's 2nd year and 3rd year in primary school. Second, the 'reduced', 'maintained', and 'increased' groups differed from each other in the degree of change in self-system competency, level of understanding of school life, number of counseling sessions with homeroom teachers, and social networking. Third, the degree of change in self-system competency and social networking predicted the increase in mothers' parenting competency. The degree of change in self-system competency and the level of understanding of school life predicted the maintenance of mothers' parenting competency.

Conclusion/Implications: This study, for the first time, has revealed the change in mothers' parenting competency and its predictive factors after the second year in primary school. How to support the growth of mothers' parenting competency was also discussed.

key words Panel Study of Korean Parental Educational Involvement, parenting competency, self-system competency, level of understanding of school life, social networking

* 본 논문은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NRF-2017S1A5B8A02072579)로 2022년 한국보육지원학회 춘계연합학술대회 포스터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1 제1저자

서울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박사통합수료생

2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석사수료생
(e-mail : covenant2018@snu.ac.kr)

3 공동저자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객원교수

I. 서론

초등학생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신체적 변화, 학업성취, 교우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 적응을 해야 하는데, 이 시기에 자녀의 긍정적 발달을 돕기 위한 어머니의 적절한 양육은 중요하다. 실제로 초등학교 저·중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어머니의 양육은 큰 영향을 미친다(박새롬 등, 2020; 연은모, 최효식, 2019). 최근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과 관련하여 실제 양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양육역량(조형숙, 김명하, 2013)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양육역량(parenting competence)은 양육지식, 양육기술의 인지적 차원과 부모 자신에 대한 가치, 자아상, 효능감, 동기 등을 포함하는 정서적 차원으로 구성된다(조형숙, 김명하, 2013). 기존의 양육 관련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 온 양육효능감(최형성, 정옥분, 2001), 양육스트레스(신숙재, 정문자, 1998), 양육태도·행동(김경혜, 공경혜, 2004)이 양육의 세부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양육역량은 자녀의 특징과 발달에 대한 이해, 자녀-부모 관계에 대한 이해, 올바른 부모 역할, 부모됨의 가치, 자녀에 대한 적절한 환경 제공 등 자녀 양육에 필요한 양육지식, 신념, 행동을 복합적으로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다(이수현 등, 2018).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역량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특정 시점에서만 양육역량을 측정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른 초등학생 어머니의 양육역량 변화 양상 및 예측요인을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어머니 양육역량을 살펴본 소수의 종단연구에 따르면 자녀가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하고부터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는 시기까지 어머니의 양육역량은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이 보고되었으며 중상위 유지집단, 하위집단, 급감소집단으로 나눌 수 있었다(정정화 등, 2019). 이러한 결과는 양육역량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며 그 양상은 여러 집단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전반적 경향에 있어서는 어머니의 양육역량이 감소하는 추세이더라도 모든 어머니가 양육역량의 감소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며, 양육역량 수준이 유지되거나 혹은 오히려 성장하는 어머니가 있을 수 있다. 양육역량의 변화를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방식은 이러한 개인차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2학년 이후의 어머니 양육역량 변화에 대해서는 전반적 경향 및 집단 분포 모두 밝혀진 바가 없다. 초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진급하는 시기는 교과 수 및 총 수업시간이 증가하는 등 학업부담이 높아지는 시기인 동시에, 학부모의 학부모교육, 학교에서의 자원봉사, 가정 내 교육지원활동 등 자녀교육과 관련된 활동에의 참여 정도가 낮아지는 시기로 나타났다(이강이 등, 2019).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은 2학년에 비해 대인갈등이 발생했을 때 공격적 행동을 더 많이 사용하기 시작하여(서보운, 2008),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의 지도에 대한 요구 또한 높아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를 볼 때 초등 3학년은 양육에 있어 아동의 발달 및 학교생활에 변화가 있어 대처가 필요하나 양육에 대한 관심도는 낮아지는 시기일 수 있다. 이때 양육역량의 감소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양육역량 증진을 위한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유아에서 초등 1, 2학년까지의 초등학교 전이거나 초등 4학년 이후의 고학년 전이기에 비해 초등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진급하는 시점의 양육역량에 대해서는 연구의 관심이 매우 적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진학하는 시기의 어머니 양육역량 변화를 살펴 그 양상

에 따라 집단을 나누고 예측변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까지 연구들은 어머니의 연령·학력·소득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장혜진, 윤은주, 2014), 자기체계역량·사회적 역량·자녀교육에 대한 심리적 기대와 같은 내적 특성(정정화 등, 2019), 정보적 지지·취업모의 일-자녀교육 갈등과 같은 환경적 특성(이수현 등, 2018; 정미라 등, 2015; 정은화 등, 2020)이 양육역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어머니의 내적 특성 및 어머니를 둘러싼 여러 체계와의 상호작용에 주목하여(Bronfenbrenner, 1979) 어머니의 개인역량, 자녀교육, 학교와의 소통,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특성이 어머니의 양육역량 변화 유형에 미치는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더불어, 네 가지 특성은 모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까지 관련 특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라 어머니 양육역량 증가, 유지, 감소 중 어떤 집단에 속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개인역량과 관련하여 자기체계역량은 어머니의 양육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기체계역량은 한 개인으로서 부모 자신의 심리적 특징과 성장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통해 심리적 건강을 유지하는 역량(정계숙 등, 2014)으로, 자신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알고,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며, 지속적 자기성찰을 하는 능력 등을 포함한다(정계숙, 최은실, 2013). 부모에게 있어 자기체계역량이 중요함은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다. Fine와 Henry(1989)는 부모교육의 4개 목표활동으로 정보나누기, 기술훈련, 문제해결 활동과 함께 부모의 자기인식 증진을 꼽았다. 2000년대 초반 OECD의 DeSeCo 프로젝트(Rychen & Salganik, 2000)는 21세기에 요구되는 시민의 핵심역량을 선정하였는데, 자기체계역량도 포괄적 핵심역량 세 가지 중 하나로 제시되면서 관심을 받게 되었다. 국내에서도 부모로서의 자기반성의 중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정계숙, 노진형, 2006). 정계숙과 최은실(2013)은 우리 사회의 학부모에 대한 인식이 부모로서의 역할에만 제한되어 있고 한 개인으로서의 심리내적인 건강이 간과되었음을 지적하며 자기체계역량이 부모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역량 중 하나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부모교육 분야에서도 부모의 자기이해와 반성적 성찰 등 자기체계역량과 관련된 요소를 중요하게 다루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강영순, 김종남, 2012; 김종민, 최은아, 2018; 정계숙 등, 2013; 황성운, 박성혜, 2012).

최근 어머니의 자기체계역량이 높을수록 초등 저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이 이전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박서이 등, 2020). 연구자들은 자기체계역량이 높은 어머니가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녀의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어머니의 자기체계역량이 높은 경우,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여 어머니 역할 수행에 발전적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지만, 자기체계역량이 낮은 경우, 자녀의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처방식에 어려움을 느끼고 이는 자녀와의 안정적 관계 형성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높은 자기체계역량은 어머니 양육역량의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기체계역량의 하위요인인 자율적 행동 조절 능력과 자기성장 관리 능력이 높은 어머니는 발달적, 긍정적 양육역량도 높게 나타나는 관계가 있었다(정계숙, 견주연, 2014). 유아-초등 전이기를 대상으로 한 중단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자기체계역량이 높을수록 양육역량이 하위 수준에 머물기보다

중상위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정화 등, 2019). 그러나 자녀가 초등 2-3학년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어머니의 자기체계역량이 양육역량을 예측하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따라서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2-3학년 시기를 대상으로 자기체계역량과 양육역량 변화의 관계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어머니의 내적 역량인 자기체계역량 자체도 개인적인 발달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Bronfenbrenner(1979)에 따르면, 개인의 내적 특성의 발달은 개인을 둘러싼 여러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일어난다. 따라서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 역시 자녀의 변화나 자녀를 양육하며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경험하는 등의 과정에서 자기체계역량이 성장할 수도, 퇴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부모교육 프로그램 수강에 따라 자기체계역량이 향상되기도 하는 것을 볼 때(김종민, 최은아, 2018; 정계숙 등, 2015), 자기체계역량이 고정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자기체계역량이 일반적으로 얼마나 변화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 않다. 만약 특정 시기에 자기체계역량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또는 유지되는지 알 수 있다면 자기체계역량 증진을 위한 개입의 시기를 선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자녀교육과 관련하여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는 어머니의 양육역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어머니가 자녀의 학교생활, 담임교사와의 관계, 교우관계에 대한 정보가 많으면 자녀의 생활을 이해하는 폭을 넓히게 되며 이는 부모-자녀관계에서 적절한 양육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부모가 자녀의 생활에 대해 잘 알고 있을수록 초기 청소년기 자녀의 심리적 부적응 및 이탈행동 수준이 낮으며 부모의 자녀생활 파악수준과 부모-자녀 관계 간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러한 관계는 자녀의 성별과 상관없이 나타났다(나유미, 임연진, 2003; Kerr & Stattin, 2000).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부모가 알고 있는 정보가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부모-자녀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자녀의 적응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자녀에 대한 파악 정도가 부모의 양육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된 바는 없다. 자녀의 생활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어머니의 양육역량에 기여하는지 검증한다면 학부모의 양육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학교생활은 초등 학령기 아동이 가정 밖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요한 생활 기반으로 학교생활에 대한 파악수준이 자녀의 생활에 대한 파악수준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영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초등 1-6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학부모의 자녀 학교생활 파악수준이 높을수록 학부모가 상담 및 학부모 교육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새롬, 이강이, 2021). 자녀의 학교생활을 잘 알고 있는 어머니가 교육참여에 관심이 높은 경향이 있는 것이다. 이를 볼 때, 학교생활 파악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하며 자녀의 발달상태 및 감정 등에 대해 잘 이해하는 등 높은 양육역량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자녀의 학교생활 파악수준이 어머니의 양육역량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학교와의 소통과 관련하여 담임교사와의 상담횟수가 어머니의 양육역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담임교사와의 상담은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변화를 줄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양육태도 변화는 자녀의 변화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담임교사와의 상담이 어머니의 양육역량에 미

치는 영향은 여러 차례 밝혀졌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담임교사에게 긍정적 피드백을 받을 경우, 자녀의 장점을 더욱 부각시킬 방법을 찾거나, 양육에 대한 조급함을 내려놓고 자신의 육아법을 유지하기도 하였다(김은영 등, 2018).

학부모 상담의 중요성을 반영해 2010년부터 모든 초등학교에서 학기별로 1주이상 학부모 상담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연 2회로 그치는 형식적 상담이 이루어지거나 학부모가 교사와의 학부모 상담을 경험한 경우가 그리 많지 않은(박정란, 2002) 실정으로, 학부모 상담이 좀 더 이루어질 필요성이 제기된다(김선경, 안도현, 2015).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학부모 상담이 적절하게 많이 이루어질수록 어머니의 양육역량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학부모 상담횟수’를 측정하였으며, 학부모 상담횟수의 변화 정도 역시 어머니의 양육역량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았다.

현재까지 초등학교 학부모 상담 관련 연구는 부족한 편이며 주로 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김선경, 안도현, 2015; 최준섭, 2020; 허승희, 박성미, 2005). 학부모가 연구대상인 경우(김은영 등, 2018; 김한별, 정여주, 2018)에도 연구방법이 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상담을 실시하는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학부모는 학부모 상담을 하는 주체이자 자녀에게 영향을 주는 직접적 존재로 학부모 상담을 통해 자녀 양육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초등학교 저학년은 여러 발달적 요구 및 교우관계, 진로 등으로 인해 어머니의 역할이 큰 시기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초등학교 2-3학년 시기의 담임교사와의 상담이 어머니의 양육역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사회적 지지와 관련하여 사회관계망은 어머니의 양육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사회적지지, 사회관계망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사회관계망의 정의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Barnes, 1954; Cochran et al., 1993; Mitchell, 1969) 공통적으로 한 개인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관계로 정의한다. 개인이 어머니인 경우 자녀양육에서 어머니의 역할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망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사회관계망은 여러 측면이 있는데 자녀양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을 해 주는 정보적 지지,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낌으로써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도록 해 주는 정서적 지지, 자녀를 직접 봐주고 놀아주는 직접 돌봄의 지지로 나뉘 볼 수 있다(이은혜, 이미리, 1996).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사회관계망의 정보적 지지에 초점을 맞춰 양육역량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어머니는 바람직한 자녀양육을 위해 필요한 여러 정보와 조언을 사회관계망을 통해 얻는데, 이러한 과정은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녀양육에서 사회관계망은 어머니의 양육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 예로, 자녀가 초등학교 전이기일 때 자녀양육과 관련한 조언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을수록 높은 양육역량을 보였고(이수현 등, 2018), 정보적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양육역량 급감소집단보다 중상위유지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정정화 등, 2019). 물론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가 항상 적절하거나 유용한 것은 아니다. 일부 경우에 따라 긴장과 위기를 일으키는 부정적 측면을 지닐 수 있다(박성연 등, 1996; Wellman, 1981). 다시 말해, 주변에서 제공한 여러 정보와 조언이 도움이 되기보다 어머니를 긴장하게 만들거나 마음에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오히려 적절한 조언을 제시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가 필요함을 반증하는 것일 수 있다. 정보가 넘쳐나 혼란스러울 수 있는 가운데, 양육역량을 유지 및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보를 통한 지지가 더욱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언과 정보를 제공하는 사회관계망이 양육역량 성장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 검증해보고자 한다.

또한 사회적 관계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는 집단이 달라지거나, 관계가 쌓여 제공받게 되는 정보와 지원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예로,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일 때, 어머니가 자녀 양육의 정보를 작년 반의 학부모, 직장 동료 등을 통해 얻었다면 1년 후에는 그 범위가 넓어지거나 관계가 더 깊어져 알게 되는 정보와 지원이 다양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회적 관계망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하고 초등학교 2학년 때와 3학년 때의 시점을 나눠 사회적 관계망의 변화 정도가 어머니의 양육역량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어머니의 사회관계망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자녀의 유아기, 초등학교 1학년에 초점을 두어 초등학교 2학년 이후부터는 사회관계망을 통해 얻는 정보적 지지가 어머니의 양육역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된 바가 없다. 초등학교 2, 3학년은 이전 학년에 비해 학교적응이 이루어졌을 수 있지만 작년과는 달라진 학업내용, 교우관계, 신체변화와 더불어 학년이 올라감에 따른 진로 고민 등으로 여전히 어머니는 주변의 정보와 조언이 필요한 시기일 수 있다. 그럼에도 초등학교 2학년 이후부터는 사회관계망을 통해 얻는 정보적 지지가 어머니의 양육역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된 바가 없다. 따라서 초등학교 2-3학년 시기에 어머니의 사회관계망이 어머니의 양육역량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2-3학년 시기 양육역량 변화와 예측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때,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양육 관련 변인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것을 고려하여(문태형, 2002) 어머니의 교육수준을 통제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2-3학년 시기에 양육역량 및 자기체계역량, 학교생활 파악수준, 담임교사 상담횟수, 사회관계망에 변화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2-3학년 시기 양육역량 변화유형에 따라 자기체계역량, 학교생활 파악수준, 담임교사 상담횟수, 사회관계망의 변화 정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2-3학년 시기 양육역량 변화유형을 예측하는 자기체계역량, 학교생활 파악수준, 담임교사 상담횟수, 사회관계망 변화 정도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에서 구축한 학부모교육참여패널의 2차년도 및 3차

년도 데이터를 제공받아 활용하였다. 학부모교육참여패널은 한국 사회의 자녀교육과 학교 환경이 외국과 다른 점, 2009년 학부모지원정책이 시행되면서 학부모 교육참여를 활성화시키려는 정책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한국 학부모에 대한 실증자료를 구축해 한국 학부모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 한국형 학부모 패널 연구의 결과물이다. 패널 자료는 경기, 서울, 인천 지역에 거주하며 2017년 3월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첫 자녀를 둔 어머니 533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세 개 지역의 1학년 학생 수에 비례하도록 지역별 목표 표본 수를 설정하여 할당표집하였으며, 각 지역 내에서 자녀의 성별과 어머니 취업 여부에 따라 균등비율로 표집하였다. 1차년도 1차조사(2017년 2월)에서 368명의 어머니가 모집되었으며, 표본 이탈을 보완하기 위해 1차년도 2차조사(2017년 8월) 시 165명의 어머니가 추가로 모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18년 8월(초등 2학년)과 2019년 8월(초등 3학년)에 수집된 자료 중 두 번의 조사에 모두 응답한 참여자 373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N = 373)

항목	구분	빈도(백분율)
연령	35세 이하	44(11.8%)
	36 - 40세 이하	209(56.0%)
	41 - 45세 이하	97(26.0%)
	46세 이상	23(6.2%)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56(15.0%)
	2 - 3년제 전문대학 졸업	102(27.3%)
	4년제 대학교 졸업	208(55.8%)
	대학원 졸업	7(1.9%)
취업 상태	미취업	221(59.3%)
	육아휴직	9(2.4%)
	취업(육아휴직 제외)	143(38.3%)
월 평균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37(9.9%)
	300 - 399만원	108(29.0%)
	400 - 499만원	93(24.9%)
	500 - 599만원	67(18.0%)
	600만원 이상	68(18.2%)
총 자녀 수	1명	141(37.8%)
	2명	201(53.9%)
	3명 이상	31(8.3%)
첫 자녀 성별	남	186(49.9%)
	여	187(50.1%)

주. 위 특성은 첫 자녀의 2학년 시기를 기준으로 함.

2. 측정도구

1) 양육역량

양육역량은 정계숙과 최은실(2013)이 개발하고, 정계숙 등(2016)이 단축화하여 타당화한 부모역량감 척도 중 양육역량에 대한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했다. 부모역량감 척도는 양육역량, 자기체계역량, 사회적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양육역량은 ‘나는 우리 아이 연령대 아이들의 발달과 욕구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 ‘나는 더욱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늘 노력한다’, ‘나는 아이의 속마음을 읽고, 그에 맞는 양육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등의 27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9개 하위요인으로 나뉜다. 하위요인의 내용은 자녀발달 특징·욕구 이해, 부모-자녀관계 이해, 건강한 부모관 갖기, 자녀 삶과 양육방향 목표 설정, 인내심 갖기, 민주적 양육, 반응적·공감적 양육, 자녀 생애진로개발, 그리고 발달·학습지원 환경 제공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여 합계 점수는 최대 135점이고, 분석에는 평균 점수를 사용했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지각한 본인의 양육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양육역량 척도의 내적 신뢰도인 Cronbach’s α 값은 2학년에서 .91, 3학년에서 .92로 높은 수준이었다.

2) 자기체계역량 변화 정도

자기체계역량은 정계숙과 최은실(2013)이 개발하고, 정계숙 등(2016)이 단축화하여 타당화한 부모역량감 척도 중 자기체계역량에 대한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했다. 자기체계역량은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나는 항상 더 많이 나 자신을 되돌아보려고 노력한다’ 등의 15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개 하위요인으로 나뉜다. 하위요인의 내용은 능동적 행동, 자기 주도 문제 해결, 자기 삶 방향·목표 설정, 자기 역량 개발, 지속적 자기 성찰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3학년 자기체계역량 평균 점수에서 2학년 자기체계역량 평균 점수를 감하여 자기체계역량 변화 정도를 산출했다. 따라서 자기체계역량 변화 정도가 양수이면 자녀가 2학년일 때와 3학년일 때 사이에 어머니가 지각한 본인의 자기체계역량 수준이 증가했음을, 음수이면 자녀가 2학년일 때와 3학년일 때 사이에 어머니가 지각한 본인의 자기체계역량 수준이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자기체계역량 척도의 내적 신뢰도인 Cronbach’s α 값은 2학년에서 .86, 3학년에서 .88로 높은 수준이었다.

3) 학교생활 파악수준 변화 정도

학교생활 파악수준은 이강이 등(2013)의 ‘2012년 학부모의 자녀교육 및 학교참여 실태조사 연구’에서 사용한 학부모가 인식하는 자녀의 학교적응 정도에 대한 문항 중 학부모가 인식하는 학교생활 파악에 관한 영역을 사용해서 측정했다. 학교생활 파악수준은 ‘나는 자녀의 학교생활(시간표, 등교시간, 과제, 학교규칙 등)을 알고 있다’, ‘나는 자녀와 교사(담임, 방과후 등)와의 관계에 대해 알고 있다’, ‘나는 자녀의 친구(학교, 동네, 선후배)와의 관계에 대해 알고 있다’와 같이 학교

생활, 교사, 친구의 3개 측면에 대해 묻는 3개 문항을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했다. 학교생활 파악수준 변화 정도는 3학년 학교생활 파악수준 평균 점수에서 2학년 학교생활 파악수준 평균 점수를 감하여 산출했다. 학교생활 파악수준 변화 정도가 양의 방향으로 클수록 어머니가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학교생활 파악수준 변화 정도가 음의 방향으로 클수록 어머니가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학교생활 파악수준 척도의 내적 신뢰도인 Cronbach's α 값은 2학년과 3학년에서 공히 .77로 높은 수준이었다.

4) 담임교사 상담횟수 변화 정도

담임교사 상담횟수는 1학기 중 담임교사와의 면대면 상담횟수를 선택형 1문항으로 질문하여 수집했다. ‘5회 이상’으로 응답한 참여자가 2학년 조사, 3학년 조사에서 각 1명씩 있었으나 5회로 변경하여 사용했다. 교사 상담횟수 변화 정도는 3학년 교사 상담횟수에서 2학년 교사 상담횟수를 감하여 산출했다. 교사 상담횟수 변화 정도가 양의 방향으로 클수록 어머니가 담임교사와 상담한 횟수가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교사 상담횟수 변화 정도가 음의 방향으로 클수록 어머니가 담임교사와 상담한 횟수가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5) 사회관계망 변화 정도

사회관계망은 박지원(1985)의 사회적 지지척도 중 정보적 지지에 관한 문항을 사용해 측정하였다. 정보적 지지는 문제해결, 의사결정, 적응, 위기 등의 상황에서 제공되는 충고, 조언, 지도와 사회에 대한 지식 제공 등에 관한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자녀 양육(교육)에 대한 경험 혹은 정보가 풍부하여 내가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다’, ‘자녀 양육(교육)과 관련하여 나에게 생긴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와 같은 문항을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했다. 사회관계망 변화 정도는 3학년 사회관계망 평균 점수에서 2학년 사회관계망 평균 점수를 감하여 산출했다. 사회관계망 변화 정도가 양의 방향으로 클수록 어머니가 인식하는 주변 사람들의 정보적 지지 수준이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사회관계망 변화 정도가 음의 방향으로 클수록 어머니가 인식하는 주변 사람들의 정보적 지지 수준이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사회관계망 척도의 내적 신뢰도인 Cronbach's α 값은 2학년과 3학년에서 공히 .81로 높은 수준이었다.

6) 어머니 교육수준

어머니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n = 215$)을 1로, 2-3년제 대학 졸업 이하($n = 158$)를 0으로 코딩하여 사용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먼저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2-3학년 시기 양육역량 및 자기체계역량, 학

교생활 파악수준, 담임교사 상담횟수, 그리고 사회관계망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했다. 다음으로, 초등 2-3학년 시기 어머니의 양육역량 변화에 따라 참여자를 유지, 감소, 증가의 세 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즉, 양육역량 변화의 방향성이 음(-)이면 감소 집단, 양(+)이면 증가 집단, 그리고 변화가 없으면(0) 유지 집단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자녀가 초등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진급할 때 양육역량 합계 점수가 전혀 변화하지 않은 참여자는 전체 373명 중 11명으로 소수에 그쳤다. 이에 원활한 분석에 필요한 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역량 유지의 기준을 완화하여 합계 점수가 1점 감소 또는 1점 증가한 참여자를 양육역량 유지 집단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양육역량 변화유형을 구분한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녀의 초등학교 3학년일 때 어머니 양육역량 합계 점수가 2학년일 때에 비해 1점 이하(평균 점수 기준 약 0.04점 이하)로 변화한 경우는 양육역량 유지 집단, 2점 이상 감소한 경우는 양육역량 감소 집단, 2점 이상 증가한 경우는 양육역량 증가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그 후, 양육역량 변화수준 집단 간에 예측변인 값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했다. 통제변수인 어머니 교육수준이 양육역량 변화수준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했다. 마지막으로, 양육역량 변화수준을 예측하는 예측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Ⅲ. 결과 및 해석

1.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2-3학년 시기 양육역량 및 자기체계역량, 학교생활 파악수준, 담임교사 상담횟수, 사회관계망 변화

<표 2>에서 보이듯이,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2-3학년 시기 양육역량의 평균은 자녀가 2학년일 때 3.88점($SD = 0.37$), 3학년일 때 3.70점($SD = 0.39$)으로 2학년과 3학년 사이에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 = 8.31, p < .001$). 어머니의 자기체계역량의 평균은 자녀가 2학년일 때 3.86점($SD = 0.41$), 3학년일 때 3.67점($SD = 0.45$)으로 2학년과 3학년 사이에 유의하게 감소하였다($t = 7.47, p < .001$). 어머니의 학교생활 파악수준의 평균은 자녀가 2학년일 때 4.35점($SD = 0.49$), 자녀가 3학년일 때 4.36점($SD = 0.50$)으로 2학년과 3학년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 = -0.52, p = n.s.$). 담임교사와의 평균 상담횟수는 자녀가 2학년일 때 0.90회($SD = 0.53$), 자녀가 3학년일 때 0.82회($SD = 0.47$)로 2학년과 3학년 사이에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 = 2.27, p < .05$). 어머니의 사회관계망 점수 평균은 자녀가 2학년일 때 3.87점($SD = 0.43$), 자녀가 3학년일 때 3.83점($SD = 0.46$)으로 2학년과 3학년 사이에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 = 1.23, p = n.s.$).

표 2.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2-3학년 시기 양육역량 및 자기체계역량, 학교생활 파악수준, 담임교사 상담횟수, 사회관계망 변화 (N = 373)

	평균 (표준편차)			t
	2학년	3학년	증감	
양육역량	3.88(0.37)	3.70(0.39)	-0.18(0.43)	8.31***
자기체계역량	3.86(0.41)	3.67(0.45)	-0.19(0.48)	7.47***
학교생활 파악수준	4.35(0.49)	4.36(0.50)	0.02(0.63)	-0.52
담임교사 상담횟수	0.90(0.53)	0.82(0.47)	-0.08(0.64)	2.27*
사회관계망	3.87(0.43)	3.83(0.46)	-0.03(0.52)	1.23

* $p < .05$,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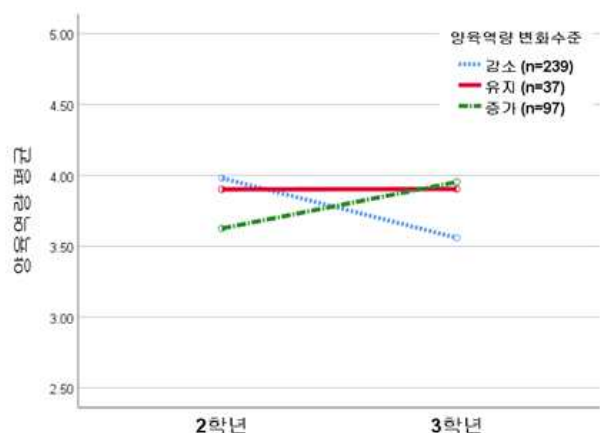


그림 1. 양육역량 변화유형에 따른 집단별 2학년, 3학년 시기 양육역량 평균

양육역량 변화수준에 따른 유형 분류 결과, 양육역량 감소 집단으로 구분된 참여자가 239명 (64.1%)으로 가장 많았고, 양육역량 증가 집단이 97명(26.0%), 양육역량 유지 집단이 37명(9.9%)으로 뒤를 이었다. 집단별 2학년, 3학년 시기 양육역량 평균은 <그림 1>과 같다. 양육역량 감소 집단의 양육역량은 2학년 때 3.98점($SD = 0.32$)에서 3학년 때 3.56점($SD = 0.36$)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t = 21.31, p < .001$), 양육역량 증가 집단은 2학년 때 3.62점($SD = 0.36$)에서 3학년 때 3.95점($SD = 0.33$)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t = -13.08, p < .001$), 양육역량 유지 집단은 2학년과 3학년 사이에 양육역량의 차이가 없었다($t = -0.39, p = n.s.$).

2.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2-3학년 시기 양육역량 변화유형에 따른 자기체계역량, 학교생활 파악수준, 담임교사 상담횟수, 사회관계망 변화 정도의 차이

어머니의 양육역량 변화유형에 따라 집단을 나누었을 때, 각 집단별 주요 변인의 2학년과 3학년 사이 증감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3>과 같다.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육역량 변화수준 집단 간에 자기체계역량, 학교생활 파악수준, 담임교사 상담횟수 및 사회관계망의 변화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3. 양육역량 변화유형에 따른 자기체계역량, 학교생활 파악수준, 담임교사 상담횟수 및 사회관계망 변화 정도 (N = 373)

		양육역량 감소 집단 (n = 239)	양육역량 유지 집단 (n = 37)	양육역량 증가 집단 (n = 97)	F
	2학년	3.91(0.39)	3.89(0.35)	3.72(0.44)	28.83***
	3학년	3.59(0.40)	3.85(0.51)	3.80(0.47)	
	변화 정도	-0.32(0.44) ^a	-0.04(0.41) ^b	0.08(0.48) ^b	
평균 (표준 편차)	2학년	4.42(0.45)	4.17(0.47)	4.22(0.49)	8.58***
	3학년	4.34(0.51)	4.43(0.46)	4.39(0.49)	
	변화 정도	-0.08(0.61) ^a	0.26(0.58) ^b	0.16(0.67) ^b	
	2학년	1.00(0.63)	0.78(0.85)	0.85(0.46)	4.97**
	3학년	0.81(0.50)	0.86(0.48)	0.88(0.44)	
	변화 정도	-0.19(0.69) ^a	0.08(0.80) ^{ab}	0.03(0.65) ^b	
	2학년	3.90(0.41)	3.91(0.42)	3.77(0.45)	11.86***
	3학년	3.77(0.44)	4.00(0.40)	3.92(0.49)	
	변화 정도	-0.13(0.49) ^a	0.09(0.47) ^b	0.15(0.56) ^b	

주. 평균값은 Scheffé 사후검정을 이용해 비교하였음(a < b)

p < .01, *p < .001.

자기체계역량 변화 정도는 양육역량 감소 집단에서 -0.32, 유지 집단에서 -0.04, 증가 집단에서 0.08로 나타나, 양육역량 감소 집단보다 유지 집단과 증가 집단에서 양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컸다 ($F = 28.83, p < .001$). 학교생활 파악수준 변화 정도는 양육역량 감소 집단에서 -0.08, 유지 집단에서 0.26, 증가 집단에서 0.16으로 나타나, 양육역량 감소 집단보다 유지 집단과 증가 집단에서 양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컸다($F = 8.58, p < .001$). 담임교사 상담횟수 변화 정도는 양육역량 감소집단에서 -0.19, 유지 집단에서 0.08, 증가 집단에서 0.03으로 나타나, 양육역량 감소 집단보다 증가 집단에서 유의하게 양의 방향으로 컸으며, 양육역량 유지 집단은 다른 집단과 차이가 없었다($F = 4.97, p < .01$). 사회관계망 변화 정도는 양육역량 감소 집단에서 -0.13, 유지 집단에서 0.09, 증가 집단에서 0.15로 나타나, 양육역량 감소 집단보다 유지 집단과 증가 집단에서 양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컸다($F = 11.86, p < .001$). 또한, 집단 간에 어머니 교육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 = 1.0314, df = 2, p = n.s.$).

3.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2-3학년 시기 양육역량 변화유형에 대한 자기체계역량, 학교생활 파악수준, 담임교사 상담횟수 및 사회관계망 변화 정도의 상대적 영향력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2-3학년 시기 양육역량 변화유

형에 대한 예측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어머니 교육수준은 앞서 카이제곱 검증 결과 양육역량 변화수준에 영향이 없었으므로 제외하였고, 2학년 양육역량을 통제 변수로 투입하였다. 이 분석모델은 자유도 10에서 χ^2 이 126.04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먼저 양육역량 감소 집단을 기준으로 양육역량 유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살펴본 결과, 자기 체계역량 변화 정도와 학교생활 파악수준 변화 정도가 유의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승산비 (Odds ratio)를 보면 자기체계역량 변화 정도가 1점 더 클수록 양육역량 감소 집단 대비 양육역량 유지 집단에 속할 확률이 32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 파악수준 변화 정도가 1점 더 클수록 양육역량 감소 집단 대비 양육역량 유지 집단에 속할 확률이 129% 증가한다. 2학년 양육역량, 담임교사 상담횟수 변화 정도, 사회관계망 변화 정도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양육역량 감소 집단을 기준으로 양육역량 증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살펴본 결과, 2학년 때 양육역량 점수, 자기체계역량 변화 정도와 사회관계망 변화 정도가 유의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승산비를 보면 2학년 때 양육역량이 1점 높을수록 양육역량 감소 집단 대비 양육역량 증가 집단에 속할 확률이 약 9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체계역량 변화 정도가 1점 더 클수록 양육역량 감소 집단 대비 양육역량 증가 집단에 속할 확률이 427% 증가한다. 사회 관계망 변화 정도가 1점 더 클수록 양육역량 감소 집단 대비 양육역량 증가 집단에 속할 확률이 126% 증가한다. 학교생활 파악수준 변화 정도와 담임교사 상담횟수의 변화 정도는 양육역량 감소 집단 대비 양육역량 증가 집단에 속할 확률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했다.

표 4. 양육역량 변화유형에 따른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양육역량 유지 집단			양육역량 증가 집단		
	B	SE	OR	B	SE	OR
절편	-2.16	2.34		9.76	1.81	
2학년 양육역량	0.13	0.59	1.14	-2.76	0.48	0.06***
자기체계역량 변화 정도	1.44	0.44	4.21**	1.66	0.36	5.27***
학교생활 파악수준 변화 정도	0.83	0.32	2.29*	0.25	0.24	1.29
담임교사 상담횟수 변화 정도	0.48	0.29	1.61	0.22	0.22	1.25
사회관계망 변화 정도	0.58	0.40	1.78	0.82	0.30	2.26**
-2Log Likelihood = 519.004, $\chi^2 = 126.04$ *** ($df = 10$)						

주. 참조범주는 양육역량 감소 집단

* $p < .05$, ** $p < .01$, *** $p < .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2-3학년 시기 양육역량 변화유형을 양육역량 감소 집단, 양육역량 유지 집단, 양육역량 증가 집단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집단 소속과 관련된 예측요인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역량은 2-3학년 시기에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 2-3학년 시기에 학부모의 양육에 대한 관심이 하락하는 경향에 대한 보고(이강이 등, 2019)를 통한 예상과 일치했으며, 선행연구(정정화 등, 2019)에서 나타난 초등 전이기 양육역량의 전반적 감소 경향이 초등 2학년 이후에도 계속됨을 보여준다. 특히, 응답자의 과반수가 양육역량의 감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초등 2-3학년 시기 어머니의 양육역량 유지 및 성장에 정책적, 연구적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한편, 양육역량 감소 집단에 비해 적은 수이지만 자녀의 초등 2-3학년 시기에 양육역량이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어머니도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양육역량 변화의 개인차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자녀의 초등 2-3학년 시기 어머니 자기체계역량의 변화 정도가 양의 방향으로 클수록 어머니 양육역량이 감소하기보다 유지되거나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어머니가 능동적, 자기 주도적으로 행동하며 지속적으로 자기를 성찰하는 능력이 성장할 때, 어머니가 자녀를 이해하고 적절한 양육을 제공하는 능력 역시 함양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유아기(정계숙, 견주연, 2014) 및 초등 1-2학년까지의 초등 전이기(정정화 등, 2019)에 해당되는 연령에서 제한적으로 밝혀진 자기체계역량과 양육역량의 관계를 초등 3학년까지 확장하여 확인한 결과이다. 특히 자기체계역량의 상대적 영향력이 여러 예측요인 중 가장 크게 나타나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자기체계역량 증진을 목표로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제안한다. 따라서 초등 2-3학년 시기 학부모교육에서 학부모의 자기 성찰과 같이 자기체계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내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초등 2-3학년 시기 어머니의 자기체계역량은 대체로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기존의 자기체계역량 연구는 자기체계역량을 한 시점에서만 측정하여 변화 여부를 알 수 없었으나 본 연구에서 초등 2학년과 3학년 사이에 어머니 자기체계역량에 변화가 있음을 처음으로 보여주었다.

셋째, 자녀의 초등 2-3학년 시기 어머니의 학교생활 파악수준 변화 정도가 양의 방향으로 클수록 어머니 양육역량이 감소하기보다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자녀의 생활에 대한 파악 정도가 높을수록 부모-자녀 관계에도 긍정적이라는 선행연구(나유미, 임연진, 2003; Kerr & Stattin, 2000)와 비슷한 맥락에 있다. 초등 저학년 어머니의 양육역량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학교생활 파악수준이 양육역량에 주는 긍정적 영향은 어머니가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자녀와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를 나눌 때 어머니가 자녀를 더 잘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양육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으로 추론할 수 있다. 기존 연구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자녀의 학교적응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하였는데(장영애, 박정희, 2008), 본 연구결과는 학교생활과 관련된 의사소통이 어머니 양육역량 증진에도 도움이 될 가능성을 제시한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를 가정에 제공하고 학부모가 자녀와 학교생활에 대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줌으로써 학부모의 양육역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자녀의 초등 2-3학년 시기 어머니 사회관계망의 변화 정도가 양의 방향으로 클수록 어머니 양육역량이 감소하기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어머니의 주변 사람들이 양육에

대한 조언과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가 높아질 때, 양육역량 성장에 도움이 됨을 의미한다. 양육역량 감소 집단의 사회관계망 변화 정도 평균이 음수로 나타난 것을 보아 이미 형성된 사회관계망의 약화가 일어났을 수 있다. 따라서 자녀의 초등 2-3학년 시기에 양육에 대해 실제적이고 유용한 정보 및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관계망이 형성 또는 유지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양육역량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관계망은 자녀양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을 해 주는 정보적 지지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낌으로써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도록 해 주는 정서적 지지, 자녀를 직접 봐주고 놀아주는 직접 돌봄의 지지까지 측정해 사회관계망 개념을 포괄적으로 측정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와 더불어 대부분의 연구들은 어머니의 사회관계망이 양육역량 성장에 긍정적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지만,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관계는 도움, 지원을 주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긴장, 위기를 갖게 하는 부정적 측면도 지닐 가능성을 언급하였다(Wellman, 1981). 이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자녀 양육에 대해 긴장과 위기를 갖게 해 어머니 스스로가 양육행동에서 갈등을 겪게 하는 사회적 관계 특성이 있지는 않는지 등 부정적 영향이 있는 관계 측면을 탐색해 볼 필요도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 2학년 이후의 어머니 양육역량 변화 양상을 처음으로 밝혔다는 의의가 있다. 이는 초등학교 전이기에 집중되어 있는 학부모역할에 대한 관심을 시간적으로 확장하고, 이후 시기에 대한 후속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둘째, 예측요인에 해당하는 변인의 값도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는 점을 규명함으로써 어머니 양육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의 변화 정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셋째, 초등학교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역량을 담임교사와의 상담과 같은 학부모역할 수행도 포함하여 분석함으로써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역량을 보다 포괄적으로 접근하였다는 점에서도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의 범위가 어머니에 한정되어 아버지의 양육역량 변화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여전히 어머니가 주양육자인 경우가 대다수이기에 어머니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향후에는 아버지의 양육역량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는 어머니의 양육역량에 아버지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초등 2학년과 3학년 시기 중 1학기에 한정된 두 시점 사이의 변화만을 분석하였다는 자료의 한계가 있다. 자녀가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진급할 때에는 양육역량이 감소했으나 3학년 이후에 다시 반등하는 학부모 집단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보다 장기적인 종단연구를 통해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하여 양육역량의 변화 양상을 보다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어머니 양육역량의 변화를 유지, 감소, 증가로 구분한 것이 연구자가 임의로 설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는 한계가 있다. 향후 군집분석 및 잠재집단분석과 같은 통계 방법을 이용하여 집단 구분을 시도한다면 보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동일한 특성의 집단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를 통해 어머니의 자기체계역량, 학교생활 파악수준 및 사회관계망이 초등 2-3학년 시기 양육역량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 시기에 양육역량이 감소하는 구체적인 원인은 알 수 없었다. 차후 자녀의 학년에 따른 어머니 양육역량 감소의 원인에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영순, 김종남 (2012). 자기이해중심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효능감, 분노조절 및 자아분화에 미치는 효과. **뇌교육연구**, 10, 106-128.
- 김경혜, 공경혜 (2004). 어머니의 자아개념 및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아개념과의 관계: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중심으로. **아동중심실천연구**, 1(1), 113-126.
- 김선경, 안도현 (2015). 학교상담: 초등교사가 지각하는 효과적인 학부모 상담 전략. **상담학연구**, 16(5), 323-338.
- 김은영, 이재용, 박성희 (2018). 학부모 상담 과정에 관한 초등 학부모의 체험분석. **초등상담연구**, 17(2), 177-200. <https://doi.org/10.28972/kjec.2018.17.2.177>
- 김종민, 최은아 (2018).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경향과 자기체계 역량 증진에 대한 메타분석.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2(2), 275-305. <https://doi.org/10.22590/ecee.2018.22.2.275>
- 김한별, 정여주 (2018).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의 담임교사 상담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6), 489-508. <https://doi.org/10.22251/jlcci.2018.18.16.489>
- 나유미, 임연진 (2003).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한 부모의 관리와 청소년의 일탈행동,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4(3), 87-98.
- 문태형 (2002). 어머니의 사고양식 및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3(6), 49-63.
- 박새롬, 이강이 (2021). 초등학교 학부모의 학교참여 활동유형에 따른 참여 결정요인 탐색. **인간발달연구**, 28(3), 167-190. <https://doi.org/10.15284/kjhd.2021.28.3.167>
- 박새롬, 홍예지, 이강이 (2020).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자녀교육 갈등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양육역량과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의 매개효과. **인간발달연구**, 27(3), 165-184. <https://doi.org/10.15284/kjhd.2020.27.3.165>
- 박서이, 김영, 최지수, 이강이 (2020). 모의 자기체계능력 및 학부모교육 참여와 초등 2학년생의 학교적응 변화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 819-838. <https://doi.org/10.22251/jlcci.2020.20.2.819>
- 박성연, 도현심, 정승원 (1996). **부모-자녀관계: 생태학적 접근**. 학지사.
- 박정란 (2002). 초등학교 학부모가 교사에게 기대하는 실제상담의 비교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보윤 (2008). 초등학교 2-6학년 아동의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의 발달 및 부모의 양육태도와의 관련. **초등교육연구**, 21(3), 467-489.
- 신숙재, 정문자 (1998).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19(1), 27-42.
- 연은모, 최효식 (2019).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 양립 시 이점과 갈등, 양육효능감, 자녀의 집행기능곤란, 학교적응 간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6), 261-285. <https://doi.org/10.22251/jlcci.2019.19.6.261>

- 이강이, 그레이스정, 이현아, 최인숙 (2013). **2012년 학부모의 자녀교육 및 학교참여 실태조사 연구**(학부모정책-수시-2013-01). 서울: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http://family-school.snu.ac.kr/new/sub3/3_2.php?mode=view&number=145&b_name=data4&page=1&keyfield=subject&key=2012에서 2022년 6월 12일 인출
- 이강이, 진미정, 이재림, 김영선 (2019).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의 교육참여 양상과 변화 연구**(학부모정책-기본-2019-01). 서울: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http://family-school.snu.ac.kr/new/sub3/3_1.php?mode=view&number=318&page=1&b_name=data2&keyfield=subject&key=2019에서 2022년 6월 12일 인출
- 이수현, 이강이, 이재림, 김영선, 유예진 (2018).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과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 양육 역량의 매개효과. **인간발달연구**, 25(3), 181-202. <https://doi.org/10.15284/kjhd.2018.25.3.181>
- 이은혜, 이미리 (1996). 어머니의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관계망과 양육곤란도 지각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7(2), 61-78.
- 장영애, 박정희 (2008). 부모의 양육행동 및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3(2), 69-85.
- 장혜진, 윤은주 (2014).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실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0(2), 295-317. <https://doi.org/10.14698/jkce.2014.10.2.295>
- 정계숙, 견주연 (2014).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 참 역량'과 부모효능감 간의 관계: 삶의 만족도의 매개 효과. **인문학논총**, 35, 113-143.
- 정계숙, 견주연, 최은아, 김지연 (2015). [부모 참 역량] 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유아와 아동 어머니의 역량을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1), 129-151. <https://doi.org/10.14698/jkce.2015.11.1.129>
- 정계숙, 고은경, 박희경, 차지량 (2014).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 참 역량] 척도 개발. **가정과 삶의질연구**, 32(2), 53-75. <https://doi.org/10.7466/JKHMA.2014.32.2.53>
- 정계숙, 노진형 (2006). 부모역할에 대한 자기반성의 부모교육을 위한 함의. **열린유아교육연구**, 11(4), 79-105.
- 정계숙, 박희경, 차지량 (2016).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부모 참 역량 척도 단축형의 타당화. **유아교육연구**, 36(2), 535-560. <https://doi.org/10.18023/kjece.2016.36.2.023>
- 정계숙, 유미숙, 차지량, 박희경 (2013). 메타분석을 통한 유아기와 아동기 자녀 부모 대상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3), 365-387.
- 정계숙, 최은실 (2013).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 참 역량 척도] 개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8(3), 225-257.
- 정미라, 차기주, 주연진, 김민정 (2015). 취업모의 직장 내 분위기의 융통성, 역할갈등, 양육스트레스와 양육역량 간의 구조적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2(4), 433-454.
- 정은화, 김지영, 이현아, 이강이 (2020).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자녀교육 갈등이 모의 양육 수행 역량에 미치는 영향: 모의 부모-자녀 동일시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41(2), 89-101. <https://doi.org/10.5723/kjcs.2020.41.2.89>

- 정정화, 홍예지, 이강이 (2019). 초등학교 전이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역량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 추정과 영향요인 및 결과요인 검증. *인간발달연구*, 26(4), 115-138. <https://doi.org/10.15284/kjhd.2019.26.4.115>
- 조형숙, 김명하 (2013).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정서적 양육역량 증진 프로그램이 부모의 자아상태, 자기분화,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7(3), 271-293.
- 최준섭 (2020). 학부모 상담주간의 운영 과정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경험하는 정서 변화에 대한 질적 연구. *초등교육연구*, 33(1), 1-30. <https://doi.org/10.29096/JEE.33.1.01>
- 최형성, 정옥분 (200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의 개발. *아동학회지*, 22(3), 1-15.
- 허승희, 박성미 (2005). 초등학교 상담교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학부모, 교사 및 학교행정가의 요구 분석. *초등교육연구*, 18(1), 19-38.
- 황성운, 박성혜 (2012). 반성적 저널쓰기 활동이 유아기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6(3), 117-142.
- Barnes, J. A. (1954). Class and committees in a Norwegian island parish. *Human relations*, 7(1), 39-58. <https://doi.org/10.1177/001872675400700102>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Harvard university press.
- Cochran, M., Larner, M., Riley, D., Gunnarsson, L., & Henderson Jr, C. R. (1993). *Extending families: The social networks of parents and their childre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ine, M. J. & Henry, S. A. (1989). Professional issues in parent education. In M. J. Fine (Ed.), *The Second Handbook on Parent Education: Contemporary Perspectives* (pp. 3-20). Academic Press.
- Kerr, M., & Stattin, H. (2000). What parents know, how they know it, and several forms of adolescent adjustment : Further support for a reinterpretation of monitor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6(3), 366-380. <https://doi.org/10.1037/0012-1649.36.3.366>
- Mitchell, J. C. (Ed.). (1969). *Social networks in urban situations: analyses of personal relationships in Central African towns*.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Rychen, D. S. & Salganik, L. H. (2000).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Retrieved June 12, 2022 from <https://www.deseco.ch/bfs/deseco/en/index/02.parsys.69356.downloadList.26477.DownloadFile.tmp/2000.desecocontrib.inesg.a.pdf>
- Wellman, B. (1981). Applying network analysis to the study of support.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 4, 171-200.

논문투고: 22.05.27

수정원고접수: 22.06.05

최종게재결정: 22.06.10